

노인 자살의 연구 동향 분석

홍시명^{1*}, 강영실², 김헌경¹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²경상대학교 간호대학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in Korea

Si-Myung Hong^{1*}, Young-Sil Kang² and Heon-Kyeong Kim¹

¹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노인자살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노인자살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인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ISS(한국학술정보(주)), Nanet(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논문 287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국내 논문 18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논문들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자살 연구들은 주로 사회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연구 개념과 키워드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지표들(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므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독거노인, 빈곤노인, 자살시도 고위험군인 남자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pos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elderly suicide study by analyzing the trend of study in elderly suicide. A literature search was conducted using RISS, KISS, Nanet. A total of 184 research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on elderly suicide in Korea from 1996 to 2013 were analyzed with structured analysis forms. For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used with EXCEL program. As a results, a study on elderly suicid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was actively and a survey of general elderly proportion of the study was high. In addition, most concepts of research were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of the elderly. Therefore, existing in previous studies classified as high-risk elderly people living alone, poor elderly, a man who attempted suicide risk in elderly subjects research through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ill be made.

Key Words : Elderly suicide, Suicide ideation, Suicidal preven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한 “2011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만 60세 이후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1.2%이다.

즉 노인 중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약 1.3%에 달하고 있다[1]. 이는 통계청의 조사에 의해서도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1년 1만5,000여명에 이르는 자살 사망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는 4,406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자살자 4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2].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Corresponding Author : Si-Myung Hong(Gimcheon Univ.)

Tel: +82-10-5257-7206 email: hsm216@gimcheon.ac.kr

Received September 26, 2013 Revised (1st October 10, 2013, 2nd October 23,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한다. 2009년 OECD가 조사한 한국 노인(65-74세)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81.8명으로 미국(14.1명)의 5배, 영국(4.8명)의 20배 수준이다. 또한 자살의 증가 추세 역시 가파르다. 2001년 1,448명이던 노인 자살자 수는 10년 만인 2011년 4,406명으로 세 배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15~64세 연령대의 자살자 수는 두 배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의 자살은 우리 사회의 위기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자살은 일반적인 성인의 자살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젊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 대 자살 수행의 비율이 200 대 1인 반면, 노인의 자살은 4 대 1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며[3], 노인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배우자나 친지들의 사별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만성적인 신체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퇴직 및 소득원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젊은 성인들과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자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특히, 이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노인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건강 32.6%, 경제적 어려움 30.8%, 외로움 10.2%, 배우자·가족·친구의 사망 3.6%, 부부·자녀·친구의 갈등 및 단절 15.6%, 배우자와 가족의 건강 4.5%, 기타 2.8%이다. 자살을 생각해 본 노인은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각각 9.9%와 12.2%),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9.9%와 13.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인 15.1%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0%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9.9%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살을 생각할 이유의 경우 남자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독거노인에게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며, 기능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도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

이러한 지표를 확인할 때 노인의 자살은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인 연령층에 적합한 예방법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국내외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 자살에 비해 노인 자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들이 부족한 편인데 이는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반영하는 것이다[4].

노인자살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5]는 국내에 발표된 우울과 자살에 관련된 연구동향분석을 하기 위해 검색이 가능한 연도에서 2008년까지 분석하였는데 그 시기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자살만 따로 분석하지 않아 노인 자살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6]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과 관련한 요인을 생태체계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5년간 관련 국내 석·박사논문과 학술지논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시기가 짧고 전공분야를 사회복지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및 보건학으로 제한을 두어 깊이 있는 연구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7]은 한국 노인 자살의 연구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학술정보 사이트를 일부분만 검색하여 내용에 한계를 보였다. [8]은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등은 제외하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만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 자살과 관련된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요약하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인 자살 관련 연구동향분석은 그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짧고, 학위논문을 제외한 학술논문과 보고서만 단편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학술정보 사이트를 일부분만 검색하여 전반적인 국내 노인의 자살과 관련된 연구경향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증가하는 국내의 노인 자살률을 고려할 때,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첫 연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향분석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자살의 실태, 관련요인, 사회적 구조요인 등에 대한 자료 및 이를 분석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으며, 공식적인 국가 자살 통계인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와 경찰청의 자살 통계에서도 노인 자살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살 예방법 및 대처가 사회적 함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노인 인구에게는 그런 서비스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간과했다고 보이는 부분을 보완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탐색하고 제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점인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노인 자살 관련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노인 자살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노인 자살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노인 자살 관련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노인 자살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노인 자살 논문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전공분야별, 연구 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연구 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 향후 노인 자살 예방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자살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

1.3 용어 정의

1.3.1 노인 자살

본 연구에서 노인 자살이라 함은 인간의 생애주기 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살생각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하거나 실제 자살 시도를 통해 자살과 관련된 불건강 행동을 시행한 것을 모두 포함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 자살에 관한 논문들을 구조화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8년간 발표된 노인 자살 관련 논문으로 하였다. 논문의 선정을 위해 학술지 및 학위논문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인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한국학술정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287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국내 논문 184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및 사고 또는 자살 시도와 관련된 연구
- 2) 노인의 자살예방과 관련된 연구

대상 논문의 발표연도를 18년으로 제한한 것은 역대 노인 자살 관련 논문을 검색하여 인터넷 학술정보 검색 사이트에 검색이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0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논문은 컴퓨터를 통해 해당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노인’ ‘자살’을 주요용어(key word)로 넣어 검색되는 논문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현재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이 on-line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동 탐색은 하지 않았으며, 주요용어 입력으로 검색된 논문들 중에 노인과 자살 분야 양쪽에서 모두 검색되는 논문은 내용상 더 가까운 분야에 포함시켜 중복을 피하였고,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다.

2.4 분석내용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기존 논문 분석연구들을 고찰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연도별 발표 논문 수,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전공분야별, 연구 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연구 개념으로 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해당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도별 논문 수

지난 18년간 노인 자살과 관련된 국내 논문 수는 총 184편이었다[Table 1]. 국내에서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검색되는 시점인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996-2000년에는 2편이었던 논문이 2001-2005년에는 18편, 2006-2010년에는 64편, 2011-2013년에는 100편으로 시간이 갈수록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year

Year	Type		n	%
	Thesis	Journal		
1996 - 2000		2	2	1.1
2001 - 2005	11	7	18	9.8
2006 - 2010	38	26	64	34.8
2011 - 2013	83	17	100	54.3
n	132	52	184	100
%	72	28	100	

특히, 노인 자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전체적인 발표 논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살 관련 연구에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강조하듯 실제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연구에도 반영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보다 학위논문을 통한 발표가 두드러지는 데 전체 184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이 132편(72%), 학술지 논문이 52편(28%)을 차지하였다.

3.2 논문의 발표유형

지난 18년간 논문 발표 학술지를 보면 Table 2 노인자살 논문의 학술지 발표의 경우 한국노년학회지에 18편(34%)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한국노인복지학회 10편(19%),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편(4.8%), 정신간호학회지 3편(3.6%), 한국심리학회지 2편(2.4%), 교내학술지 2편(2.4%)순이었다. 이는 노인자살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학술지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였다.

노인 자살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석사학위논문 106편(80%), 박사학위논문 36편(12%)으로 석사학위논문이 더 많았다.

[Table 2] Publication type of journals

Type	Classification	n	%
Thesis	Master's thesis	106	80
	Doctor's thesis	26	20
Journal	J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8	34
	J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10	19
	J Korea Mental Health Social Work	4	4.8
	J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3	3.6
	J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	2.4
	College publication	2	2.4
	Others	13	25
Total		184	

3.3 논문의 전공 분야별 유형

노인 자살 논문 184편을 분석한 결과 전공 분야별 분포는 Table 3과 같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영역으로 121편(66%)이었고, 그 다음으로 간호학 21편(11%), 심리학 11편(6%), 보건학 7편(4%), 의학 6편(3%)이었으며 그 외 신학,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에서 3편씩, 가정학, 체육학, 건설 환경학, 경영학에서 1편씩의 논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저자들의 연구 분야가 뚜렷하지 않은

논문 또한 2편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An analysis of trends by field of department

Field of department	n	%
Social welfare	121	66
Nursing	21	11
Psychology	11	6
Public health	7	4
Medicine	6	3
Etc	18	10
Total	184	100

이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고 그 다음으로 간호학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나 논문의 편수만으로는 6배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심리학, 보건학, 의학 등에서도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표되는 연구의 10%이내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논문의 발표 유형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노인 관련 연구가 활발한 사회복지 영역이 노인 자살에 대한 관심도 높아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유추할 수 있다.

3.4 연구 설계별 유형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 유형을 크게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종설, 상관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연구가 115편(62%)으로 전체 논문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2차 자료 분석 26편(14%), 종설 18편(10%), 상관연구 14편(8%), 실험연구 7편(4%), 질적연구 2편(1%), Q-방법 연구 2편(1%)순이었다[Table 4].

[Table 4] An analysis of trends by the type of study design

The study design	n	%
Surveys	115	62
Second data analysis	26	14
The study design	n	%
Review article	18	10
Correlation	14	8
Experimental research	7	4
Qualitative research	2	1
Q - method	2	1
Total	182	99

3.5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28편

(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 15편(8%), 독거노인 10편(5%), 입원노인 5편(3%), 사별노인 5편(3%), 기독교노인 4편(2%), 자살시도노인 4편(2%), 치매노인 2편(1%), 골관절염 노인 1편(1%)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거나 검토하여 연구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 10편(5%)이 있었다[Table 5].

[Table 5] An analysis of trends by subjects

Subject	n	%
General Elderlies	128	70
Elders living in nursing facilities	15	8
Elders Living alone	10	5
Preceding research	10	5
Geriatric Inpatients	5	3
Separation by death old person	5	3
Christian Older Adult	4	2
Suicide Attempts Elderlies	4	2
Elders with Dementia	2	1
Elders with Osteoarthritis	1	1
Total	184	100

연구 대상자 중에서 일반노인의 경우는 연구 논문 속에서 일반적 특성인 종교, 거주형태, 배우자 유무,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으나 논문 속에서 일반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재가노인과 시설 입소노인 등의 차이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일반노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노인 자살 연구의 경우 노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3.6 연구개념

지난 18년간의 노인 자살 관련 연구에서 중복되는 연구 개념들을 종합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념은 자살로 전체 연구 목록에서 168편(40%)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인 요인 115편(27%), 사회적 요인 74편(18%), 스트레스 30편(7%), 신체적인 요인 12편(3%), 만족감 10편(2%), 가족적 요인 7편(2%), 종교적 신념 5편(1%)으로 나타나 8개의 주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Table 6].

[Table 6] An analysis of trends by Research concept

Concept	n	%
Suicide	168	40
Psychologic factors	115	27
Social factors	74	18
Stress	30	7
Physical factors	12	3

Satisfaction	10	2
Family factors	7	2
Religious belief	5	1

또한, 8개의 주요 개념을 연구의 성격 및 주제에 따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Table 7].

[Table 7] An analysis of trends by keywords

	Keywords	n	
Suicide	Suicidal idea	105	
	Elders suicide	18	
	Suicide	14	
	Suicidal prevention	13	
	Suicidal impulse	11	
	Etc	7	
	Stress & Stress Strategy	Stress	17
Stress coping		7	
Every day life stress		3	
Subjective stress		1	
Stress in elderly		1	
Negative life events		1	
Psychologic factors		Depression	70
	Self esteem	20	
	Experience of loss	4	
	Hopeless depression	4	
	Despair	4	
	Loneliness	3	
	Mental health	3	
	Social isolation	2	
	Self elasticity	2	
	Anger expression	2	
	Death anxiety	1	
	Social factors	Social support	37
		Family support	7
Friend support		2	
Professional Support		2	
Social relation network		5	
Ageism		4	
Elder abuse		3	
Attitude toward the elderly		2	
Socializing activity		4	
Leisure activities Participation		4	
Etc		4	
Physical factors		Alcohol abuse	4
		Subjective health	3
	Etc	5	
Family factors	Family bonds	3	
	Family harmony	2	
	Family relationships	2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7	
	Satisfaction of life	2	
Religious belief	Meaning of life	1	
	Spirituality	2	
	Etc	3	

노인 자살 연구에서 중복되는 키워드를 정리하여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위 8개의 주요 연구 개념 중 자살이라는 연구 개념 속에서도 “자살생각(사고)”이라는 키워드가 105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심리적 요인 속의 “우울”이 70편, 사회적 요인 속의 “사회적 지지”가 37편 등으로 나타났다.

3.7 연구도구

분석한 논문 184편 중 노인의 자살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총 110편으로 모두 자살생각(사고)를 측정하는 것이었고, 노인 자살 연구에서 이용된 도구는 다양하였다[Table 8].

[Table 8] An analysis of trends by instruments

Instruments	n	%
Beck et al(1979)	58	53
SSI(Scale for Suicide Ideation)		
Harlow et al(1986)	40	36
SIS(Suicidal Ideation Scale)		
ASRE(Assessing the Suicidal Risk of an Elder)	4	3
Reynolds(1998)	3	3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Latham and Prigerson (2004)	2	2
Yale Evaluation of Elderly Suicidality Scale		
Osman et al.(1998)		
PANSI(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ventory)	2	2
Etc	1	1

Beck et al.(1979)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을 이용한 문헌이 58편(53%)으로 가장 많았고, Harlow et al.(1986)의 Suicidal Ideation Scale (SIS)을 이용한 문헌이 40편(36%), 미국 Assessing the Suicidal Risk of an Elder (ASRE)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문헌이 4편, Reynolds(1998)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이용 문헌이 3편, Latham and Prigerson(2004)의 Yale Evaluation of Elderly Suicidality Scale 이용 문헌이 2편, Osman et al.(1998)의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ventory 이용 문헌이 2편, 정신보건센터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질문형 도구로 이용한 문헌이 1편이 있었다.

4. 논의

4.1 연도별 논문 수

지난 18년간 국내 노인 자살 관련 논문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06~2010년의 경우 논문 수(64편)가 2001~2005년에 비해 3배 이상(18편) 더 많아 이 시기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2004년 수립된 정부의 자살예방 5개년계획으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 환경적 접근과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대상자적 접근을 포괄하는 추진 체계 구축, 생애주기와 사업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전략하에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대책을 제시하면서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9]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다양한 자료들을 매스미디어가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0여년간 한국사회의 변화는 압축적인사회경제적 발전과 압축적인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압축적인 변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인하여[10] 노인이 경험하고 적응해야 하는 변화의 규모가 크고 다양해졌다[11]. 그 결과 국내에서의 노인 자살은 예측된 사회적 문제였기에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논문의 발표 유형과 전공분야별 유형

노인 자살 연구에서 논문의 발표 유형을 보면 논문용 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한국노년학회지(34%)와 한국노인복지학회지(19%)에 편중되어 발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국노년학회지의 발표가 활발한 이유는 한국노년학회가 보건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사회학, 심리학, 간호학, 건축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노년학이라는 다학제적 학문영역으로 연결하고[12] 있어 세부전공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공통적으로 관심이 연구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분야별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 정도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학이 121편(66%)으로 전체 논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학이 21편(11%)으로 사회복지 전공 논문의 1/6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08년 노인 우울 및 자살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결과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논문이 전체의 57.4%를 차지[5]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 자살 연구의 논문의 발표 유형 분석에서도 학술지 논문의 경우 다학제적인 학문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노년학회지에 논문 발표수가 많았지만 실제로 한국노년학회지에 투고된 노인 자살 연구는 2편을 제외하

고는 모두 사회복지 영역의 논문이었다. 이는 사회복지 전공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향후 노인 자살에 대한 실제적인 개입과 예방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연구 설계별 유형 및 연구대상자

노인 자살의 연구 설계 유형을 분석해 보면 조사연구가 115편(62%)으로 전체 논문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차 자료 분석 26편(14%), 종설 18편(10%), 상관연구 14편(8%), 실험연구 7편(4%), 질적연구 2편(1%), Q-방법 연구 2편(1%)이 있었다. 이처럼 국내 노인 자살 연구에서 조사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 대상자 분석에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8편(70%)으로 가장 많았던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연구의 편리성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 자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고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의 다양화와 연구 방법 및 설계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4 연구개념

연구 개념의 분석에서는 노인 자살 연구에서는 중복되는 개념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념인 자살의 경우 전체 연구 목록에서 168편(40%)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인 요인 115편(27%), 사회적 요인 74편(18%), 스트레스 30편(7%), 신체적인 요인 12편(3%), 만족감 10편(2%), 가족적 요인 7편(2%), 종교적 신념 5편(1%)으로 8개의 주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연구 개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살의 경우 세부 키워드를 확인하면 자살생각(사고)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자살 연구는 자살생각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위험성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의 주요 개념별 세부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 연구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개념과 관련하여 노인 자살의 원인조건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심리적 요인의 경우 세부 키워드 분석에서 우울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하고 대표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는데, 모든 기존 연

구에서 자살생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8,13-16]. 자아존중감의 경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17]과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1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반면,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한 [19]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아효능감과 삶의 질 및 만족도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무망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8].

연구 개념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사회적 요인은 노인 자살연구에서 사회참여/사회적 지지, 가족관계/가족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8].

네 번째로 연구 개념 세부 키워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스트레스의 경우, 자살을 포함한 부적응 행동은 스트레스 자극이 개인의 대처능력을 넘어 설 만큼 충분히 클 때 발생한다고 본다. 대처능력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노인의 성격특성, 우울장애, 통제소재, 문제해결기술이 포함되는데 이들의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이 자살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20,21].

이외에도 [10]은 우리나라를 분석대상으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노인 자살률 변동 추이를 경제성장률,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연관성 하에 검토하였으며 경제성장이 전년도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때 노인자살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며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때 자살률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개념 설정 시 경제적인 요인의 반영도 지속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의 연구 동향을 분석 결과 연구 개념은 기존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개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노인 자살 관련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8년간 발표된 노인 자살 관련 논문으로 하였다. 논문의 선정을 위해 학술지 및 학위논문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인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한국학술정보(주)), 국회도서관(Nanet)을 이용하여 287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국내 논문 184편을 대상

으로 하였다.

수집된 논문들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번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18년간 노인 자살과 관련된 국내 논문 수는 총 184편이었다. 국내에서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가 검색되는 시점인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996-2000년에는 2편이었던 논문이 2001-2005년에는 18편, 2006-2010년에는 64편, 2011-2013년에는 100편으로 시간이 갈수록 연구가 활발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 자살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보다 학위논문을 통한 발표가 두드러지는 데 전체 184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이 132편(72%), 학술지 논문이 52(28%)를 차지하였다.
- 노인 자살 논문의 발표 유형은 학술지 발표의 경우 한국노년학회지에 18편(34%)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한국노인복지학회 10편(19%),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4편(7%), 정신간호학회지 3편(3.6%), 한국심리학회지 2편(2.4%), 교내학술지 2편(2.4%)순이었다.
- 전공분야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영역으로 121편(66%)이었고, 그 다음으로 간호학 21편(11%), 심리학 11편(6%), 보건학 7편(4%), 의학 6편(3%)이었으며 그 외 신학,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에서 3편씩, 가정학, 체육학, 건설환경학, 경영학에서 1편씩의 논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노인 자살 연구가 활발함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 연구 설계 유형은 조사연구가 115편(62%)으로 전체 논문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차 자료 분석 26편(14%), 종설 18편(10%), 상관연구 14(8%)편, 실험연구 7편(4%), 질적 연구 2편(1%), Q-방법 연구 2편(1%)이 있었다.
- 연구대상자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28편(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요양시설 입소노인 15편(8%), 독거노인 10편(5%), 입원노인 5편(3%), 사별노인 5편(3%), 기독교노인 4편(2%), 자살시도노인 4편(2%), 치매노인 2편(1%), 골관절염 노인 1편(1%)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인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거나 검토하여 연구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이 10편(5%)이 있었다.
- 노인 자살 관련 연구에서 중복되는 연구 개념들을 종합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념인 자살의 경우 전체 연구 목록에서 168편(40%)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인 요인 115편(27%), 사회적 요

인 74편(18%), 스트레스 30편(7%), 신체적인 요인 12편(3%), 만족감 10편(2%), 가족적 요인 7편(2%), 종교적 신념 5편(1%)으로 8개의 주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 분석한 논문 184편 중 노인의 자살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논문은 총 110편으로 모두 자살생각(사고)를 측정하는 것이었고, 노인자살 연구에서 이용된 도구는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Beck et al.(1979)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을 이용한 문헌이 58편(53%)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최근 18년간의 노인 자살 연구들은 사회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연구 개념과 키워드는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지표들이었고 연구 도구는 외국의 자살생각 특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비중이 높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노인 자살 연구는 전공분야별 다양성이 부족하고 연구 설계나 대상자가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연구는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자에 있어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 편중된 연구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독거노인과 빈곤 노인, 자살시도의 고위험군인 남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헌연구에 있어서도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메타분석을 통한 점검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의 노인 자살 연구는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고 실제 기존의 자살 연구에서 자살생각 측정은 자살에 대한 개입과 예방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외국에서 제작된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고 한국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 노인이 생각하는 자살생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노인 관련 연구에 대해서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다학제적인 학문 배경을 활용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안을 통해 노인 자살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study for the aged*, pp.1-901, 2011.
- [2] Statistics Korea, 2009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pp.1-35, 2011.
- [3] B. K. Yeon, S. G. Ryu,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Vol.5, No.2, pp. 134-139, 2001.
- [4] J. N. Bae, "Elderly Suic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Vol.5, No.2, pp. 113-119, 2001.
- [5] H. K. Kim, K. J. Lee, J. Hur, E. J. Song,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Elderly suicide and depression in Korea", *Nursing Science*, Vol.20, No.2, pp.62-69.
- [6] K. H. Choi, "Analysis on the Related Factor of the Korean Elderly's Suicide in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Asan*, 2010.
- [7] P. H. Heo, "The Current Trend of Research on Korean Elderly Suicide and Future Research Iss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Asan*, 2010.
- [8] M. H. Kim, H. S. Kim, "A Review on the Risk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Elderly(2000-2010)",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48, No.1, pp.23-34, 2011.
- [9] S. J. Lee, S. H. Lee, "A study of Elderly Suicide Preventive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156, pp.32-42, 2009.
- [10] S. Y. Kim,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Social Welfare Policy*, Vol.19, pp.181-205, 2004.
- [11] S. J. Lee, K. H. Jung, E. J. Kang, S. K. Kang, S. H. Lee, Y. A. Kim, "Socio-economic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 of elderly suicide",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141-154, 2009.
- [12]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http://www.tkgs.or.kr/html/sub01_01.asp, [cited 2013 Sep 25]
- [13] S. G. Kang, "Study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old to think suicide - Focused on the solitude old and the cohabited old -",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ju University, Chongju*, 2008.
- [14] H. Y. Kim,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El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6.
- [15] G. S. Jang,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013.
- [16] S. H. Ju, "A Study on the Effects ADL and Depressoin on the Elderly Living Alone's Ideation of Suicide", *Family and culture*, Vol.20, No.2, pp.31-53, 2010.
- [17] Y. D. Song, J. A. Son, S. M. Park, "An analysis of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0, No.2, pp.643-660, 2010.
- [18] S. M. Yang, C. S. Rim, "A Relativ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32, pp.377-396, 2006.
- [19] B. G. Park, "Study on a Moderating Effect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mmunity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28, No.4, pp.969-989, 2008.
- [20] H. C. Kim, Y. M. Sohn,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Suicide and Suicidal Typ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Vol.12, No.2, pp.1-19, 2006.
- [21] J. M.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Focus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24, pp.233-253, 2010.

홍 시 명(Si-Myung H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서라벌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노인자살, 기본간호

강 영 실(Young-Sil Kang)

[정회원]



- 1981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김 현 경(Heon-Kyeong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9월 ~ 2006년 1월 : 삼성서울병원 임상연구센터 연구원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서라벌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자살, 스트레스, 중독, 질적연구